

[초등 논술 4] 3단원 영원한 삶은 행복일까

◎ 「진시왕의 꿈」을 읽고 진시왕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 봅시다.

학년

반, 이름





## 진시황의 꿈

진시황은 분열해 있던 중국을 역사상 최초로 통일하고 스스로 황제라고 불렀던 인물이다. 그러나 천하 통일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진시황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 수 밖에 없었다.

진시황은 제국과 자신의 생명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불로장생약을 구하려고 평생을 애썼다. 진시황은 서복에게 어린 소년, 소녀 3천명과 보물을 실은 배를 거느리게 하여 신선이 사는 섬에서 불로장생(不老長生)\*의 약을 구해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복은 끝내 약을 구하지 못하고 도망쳐 버렸다.

그 후 진시황은 스스로 신선이라고 하는 노생과 후생을 궁으로 불러들여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신선술을 배우고자 했다. 그러나 그토록 후하게 대접을 해 주었던 노생과 후생이



진시황

자신을 비방하고 몰래 도망쳐 버리자 모든 잘못을 학자들에게 돌렸다. 학자들이 자신을 비방한다는 핑계로 수많은 책을 불태웠고 460여 명이나 되는 학자들을 붙잡아 구덩이를 파고 생매장해 버렸다. 이것이 바로 분서갱유(焚書坑儒)\* 사건이다.

이처럼 불로장생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진시황은 5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영원하기를 기원했던 통일 제국은 그가 죽은 지 3년 뒤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 불로장생(不老長生): 늙지 아니하고 오래 삶

\* 분서갱유(焚書坑儒): '분서'는 책을 불사른다는 뜻이고, '갱유'는 유생을 구덩이에 산 채로 파묻는다는 뜻

**Q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Q 진시황의 불로장생의 꿈은 어떻게 되었나요?**

**Q 만약 진시황이 내 친구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